

세이비어 교회 소식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다음주 전교인 야외예배 안내
일시: 6월 2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Bethpage State Park Playground
(주소: Old Bethpage, NY 11804)
주일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3. 전교인 수련회 안내
일시: 8월 18(토)~19(주일) 장소: 포코노 수양관
4. 뉴욕 농아인교회 일일차집
뉴욕 농아인교회 창립 10주년을 감사하며 6월 23일(토)에 일일차집 행사를 진행합니다.(11am - 7pm)
(장소: 뉴욕 농아인교회, 143-11 Willets Poin Blvd Flusing NY 11357)
5.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Father's Day 주일로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출산소식 - 조유림(이성훈) 자매께서 아들 은찬 군을 출산하셨습니다.

6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6/17		이경희	교회	한순자
6/24	배한우	임수영	전체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1층 친교실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주일설교요약

제목 : 옛 사람과 새 사람

본문 : 에베소서 4장 22~29절

- 기도제목 : 1. 교회의 하나 됨에 힘 쓸 수 있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2.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을 수 있도록 하소서.
3.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소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됨을 우리가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힘쓸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 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 됨을 보여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됨을 말처럼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쓸 때, 교회의 하나 됨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지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각 지체들은 우리들입니다. 지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지체의 반대말은 개체입니다. 개체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교회 멤버는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서로에게 진실되지 않을 때, 위선과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의 지체로서의, 교회의 하나 됨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진실함 위에 세워질 때,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구관계, 가정에서 부모관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서로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들의 관계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세워지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26~27절입니다. “분을 내어두고 죄를 짓지 말며 헛어 벗어 버려야 할 것 말고 마귀로 탐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헛어 버려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분노입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있습니다. 분노가 커지면서 미움과 원한의 감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며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미움과 원한으로 자라나고 결국 그 탐으로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들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은 직업적인 도적질이 아닙니다. 도적질을 하다는 것은 세상을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쉽게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살아가려는 게으른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더러운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본문 29절의 말씀 속에서 찾는다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 모두 더러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 무엇이 옳은 말인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항상 바른 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공동체의 하나 됨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이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도 품위와 수줍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겠습니까? 교회 멤버로서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품격 있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말 -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썩어져 가는 구습들(거짓과 분노와 도둑질 그리고 더러운 말들)을 벗어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진실한 사람! 화해하는 사람! 탐 흘려 수고하며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사람! 그리고 선한 말을 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교회 안에는 이와같은 새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 품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하나 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세상의 썩어져 가는 구습들을 다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의 모습들이 충만해져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보여 줄 수 없는 하나 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세이비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사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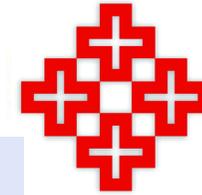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6월 17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후서 강해) 기도: 이경희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0번(시편 91편)	
찬 송 Hymn	195장	
기 도 Prayer	허도행 집사	
성 경 Scripture	에베소서 4장 22~29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옛 사람과 새 사람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368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